

논산시의회 의정 연수를 통한 일본 독도망언 규탄대회 개최

논산시의회(의장 이혁규)는 지난 9월 1일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대장 이승수)를 격려하고 일본의 독도망언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에서 특히, 일본 시네마현 의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다게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할 것, 독도에 망언·망발을 중지하고 즉각 사과할 것, 침략적 근성을 버리고 군국주의적 망령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논산시의회는 이번 의정연수와 독도 방문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국가 안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3만 논산시민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천명하였다.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논산시의회(의장 이혁규)는 9. 16(금) 오전 10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 23(금)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통하여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축조심의 계수조정을 통하여 논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규칙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논산지역을 관통함에도 논산 정치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하고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KTX 논산역 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승인하였다. 논산시의회는 앞으로도 13만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